

Issue Comment

2018. 6. 25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6월 냇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1.6%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07.5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1.1% WoW), 소麦(-1.7% WoW), 대두(-1.2% WoW), 원당(+0.2% WoW) 기록. 옥수수는 미국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인 중서부 지역의 양호한 기상 여건이 뒷받침되며 수확량 증대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내립. 주 후반 아이오와, 미네소타, 기타 주요 콜롬비아 지역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작물 침수 피해 우려가 확대되며 소폭 가격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 가격 약세 지속. 소맥은 미-중간 무역갈등 중심에 있는 대두 가격 하락에 동반 하락. 달러화 강세 압력과 미국 겨울밀 수확 진행률 향상, 블밀의 양호한 작황 상태가 소맥 가격 낙폭을 확대. 대두는 6/20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배에 달하는 추가 보복관세 10% 부과 대상 검토. 지시에 나서며 가격 하락 압박. 인도의 미국산 두류 관련 수입관세 부과 소식까지 더해지며 가격 추가 하락. 원당은 주 초반 브라질 원당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이 태국과 인도의 원당 생산량 급증분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관측되며 가격 하락. 주 후반 브라질 해랄화 강세가 원당 생산자 판매 물량 억제 기제로 작용하며 가격 상승. 그 결과 전주 대비 보합세.

중국 일부 지역 라이신 가격 상승. Ajinomoto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라이신과 쓰레오닌 생산을 50% 수준으로 감산 계획. Dacheng은 6월 생산량 50% 감축, East Xiao 6/18일까지 생산 중단 계획. Gold corn 14~20일 안에 생산 감축, Eastern의 경우 6월에 생산 중단 계획. 메타오닌은 중국 국내 시장 회전을 전주 대비 소폭 향상. 일부 국내 제조업체 가격 인상 및 제조업체 감산 계획으로 단기간 가격 안정. 쓰레오닌은 주초 미-중간 무역분쟁 영향으로 대두 가격 상승하며 중국 국내 가격 소폭 상승 후 유지. Yipin 온라인 기간 동안 생산 중단 계획. Hohnia와 Zalandun 20~30일 내 공장 생산량 50% 감산 계획. 일부 제조업체 환경 보호 및 정밀검사로 생산량 감축. 트립토판은 생산 감축으로 인한 제한된 재고로 단기간 점진적 상승 지속. 국내 이벤트는 1. 삼양식품, 일본 수출 실적 '16년 대비 '17년 13억 3천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데 이어 '18년 5월까지만 약 13억원 기록. 일본 수출의 약 70%는 불닭볶음면으로 추산. 2. 오리온, 스낵 과자 '꼬북칩' 출시 후 1개월 동안 총 4,600만봉 판매되어 누적 매출액 500억원 돌파. 3. CJ프레시웨이, 베트남 최대 외식기업 '골든게이트'와 MOU 체결. 해외인에서 하노이까지 사업 진출 지역 확대. 4. CJ프레시웨이, 베트남 수입 유통 업체 '타오티엔' 지분 51% 수준 확보해 인수. 5. 롯데지주, 롯데제과/롯데칠성 주주 대상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에서 청약률 54.91% 기록.

2. 금주 전망

음식료: 의견 Overweight, 하반기 전망 HMR, 해외단어라운드로 오리온, 롯데푸드, 매일유업 신호 CJ제일제당, 동원F&B 하반기 터어라운드 전망

오리온 5월~6월 꼬북칩 매출액 본격 반영 및 개선된 수익성 효과 지속될 전망. TT채널 대리점 일원화 작업 지속으로 하반기까지 500여명 추가 구조조정. 하반기 초코파이 가격인상, 건과류 신제품 매출은 추가 성장요인. 마진을 측면에서 스포라이즈는 지속가능성 있다고 판단. 롯데푸드 후레쉬델리카 흑자 전환 지속으로 2분기 식품부문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지속, 분유 수출은 4~6월 정상화 하반기는 공장 추가 인증으로 매출액 증가 예상. 국내 분유는 매출액 유지 지속. 육기공 부문은 1분기 가격인상 및 전년도 험버거별 기저로 2분기 이후는 P, Q, C 성장 예상. 매일유업 분유 수출은 1분기 80억원 기록 이후 2분기 100~120억원 흐름 예상.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는 지속되고 있지만 백색시유, 상하목장, 커피음료 등 주요 카테고리 매출 성장도 지속. 2분기는 1분기 대비 미케팅비 지출이 예상되지만 계절성을 반영한 지출이므로 yoy 큰 폭의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 CJ제일제당 가공식품의 외형 성장 및 소재 식품의 수익성 개선 지속. 쉬안스 컵퍼니 인수 가능성은 가공식품 매출액 혼합업이 가능한 M&A로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 마니커 투자는 이지비아이와의 협업을 위한 140억원 보증금 성격의 투자를 사료부문의 투자 확대로 판단하지는 않음. 해외바이오 부문은 스핏 가격 하락이 우려스럽지만 가격 하락이 후 반기 시그널(기동률 하락, 2~3분기 수요 회복 등) 발생하는 상황. 아미노산 가격 반등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동원F&B 1분기 원가 부담에 따른 부진 이후 매출액 성장은 지속. 하반기 참치어가, 치즈원가 전년대비 하락 전환으로 원가 개선 기대.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오리온 (071560)

18. 4~5월 기준 2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4,5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은 신제품 성과 및 6월 실적에 따라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중국 꼬북칩은 5월부터 입점 매출 발생, 6월 본격화 예상. 꼬북칩 5월 매출액은 5월 수준 5월 초 상회 출시, 딜리 캐릭터파인 20~30억원 매출, 혼다 칩 18억원 매출 등 신제품 매출 기여는 점진적으로 확대. 예상비용 집행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상황으로 과도한 비용 집행 우려는 여전히 적음. MT 경소상 400개, TT 경소상 400개 감축으로 경소상 사이즈 1,000개 수준으로 감소. TT채널의 대리점 일원화 작업도 지속. 한국/베트남 매출액 호조. 국내는 18.7월 그래놀라 출시, 농협과 JV로 연간 200억원 기대. 올해는 반기 매출로 100억원 예상.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연말에 출시 가능. 연간 70~80억원 매출액 전망. 베트남은 7~8% 매출 성장 지속 중이며 내수 시장에서는 스낵/파이류 카테고리가 성장 주도. 하반기 쌀과자 신제품, 19년 양산행 출시 계획. 러시아는 악성 딜리 교체 2분기 이어지지만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 되며 하반기 다시 직거래 딜리 늘려 전시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동원F&B (049770)

2Q18 전부문 매출 성장 흐름 지속. 1분기 실적 부진 이후 2분기 영업이익 15~20% 성장 전환 전망. 참치부문 9~10% 매출액 성장 지속 중, 신제품+가격 인상+수량성장 효과. 참치어가는 2분기부터 개선. 하반기 분기별 50억원 원가절감 예상. 참치 연간 매출액 3,000억원 규모. 신제품 더참치 매출액은 연간 300억원 규모로 10% 비중. 더참치의 신제품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레시피가 다양해지는 기준 참치가 신수요를 창출하여 수량 성장 중. 치즈 매출액은 1,500억원 규모. 치즈부문 2분기까지는 소폭 원가 부담 예상되지만 하반기 분기별 10억원 원가절감 예상. 분기별 치즈원가는 1분기 25억원 부담, 2분기 5억원 부담, 3분기 10억원 개선, 4분기 10억원 예상. 부문별 수익성은 치즈는 전시 평균 상회, 가공유/발효유 전시 평균 수준, 백색시유는 전시 평균 하회. 동원홀푸드는 식자재 10% 성장 연간 매출액 5,000억원. 외식프랜차이즈, 에듀(유치원, 학교 등) 경로 매출 성장. 삼조셀렉과 연계한 메뉴제안 영업이 매출 성장에 기여.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 중. 더반찬의 경우 이미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입점 체널 확대할 계획.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